

# DAISHIN START

\* START=STrategic Analysis and Refreshing Thoughts



## 가격제한폭 확대는 시장 활성화 의지의 적극적 표현

**Focus** ▶ 3p 참고

Quant. Analyst 이대상 02.769.3545 daesanglee@daishin.com

1998년 이후 16년 만에 가격제한폭 제도 변경. 16년 동안 유지해 오던 제도를 변경하려는 이유는 지금의 시장 변동성이 극도로 낮아져 있기 때문. 다양한 전략의 투자자가 유입되는 효과를 통해 시장의 역동성이 제고될 수 있음. 보다 중요한 것은 증시를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의도가 이번 제도 변화를 통해 또 한번 확인됐다는 것

2014년 08월 14일 목요일

### KOSPI

2062.36 ▲20.89 (1.02%)

	8/11	8/12	8/13
종가	2039.37	2041.47	2062.36
등락	8.27	2.10	20.89
등락폭(%)	0.41	0.10	1.02
거래량(백만주)	284	311	279
거래대금(십억원)	3,569	3,706	4,139
시가총액(십억원)	1,178,164	1,179,345	1,191,413

주: 거래량, 거래대금, 시가총액은 보통주 기준으로 표시

### KOSDAQ

551.73 ▲5.97 (1.09%)

	8/11	8/12	8/13
종가	546.30	545.76	551.73
등락	2.06	-0.54	5.97
등락폭(%)	0.38	-0.10	1.09
거래량(백만주)	303	317	305
거래대금(십억원)	2,033	2,061	2,303

주: 거래량, 거래대금, 시가총액은 보통주 기준으로 표시

**증시일정** ▶ 2p

**파생시황** ▶ 10p

**Chart Alarm** ▶ 11p

**매매 및  
자금동향** ▶ 17p

13일 코스피는 외국인 순매수가  
이틀연속 이어지며 전일대비 1.02%  
상승한 2062.36에 마감

# 주간 증시 일정

월	화	수	목	금
<b>4</b>	<b>5</b>	<b>6</b>	<b>7</b>	<b>8</b>
EMU 8월 섹터투자지대 (전기:10.1, 발표:2.7)	美 6월 제조업수주 (전기:-0.6%, 발표:1.1%) 美 7월 비제조업지수 (전기:56.0, 발표:58.7) EMU 6월 소매판매 (전기:0.6%, 발표:2.4%) EMU 7월 복합 PMI 최종 (전기:52.8, 발표:53.8)	美 6월 무역수지 (전기:-44.7B, 발표:-41.5B) 獨 6월 공장수주 (전기:5.5%, 발표:-2.4%)	美 주간 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 (전기:303K, 발표:289K) 獨 6월 산업생산 (전기:1.1%, 발표:-0.5%) ECB 회의	美 6월 도매재고 (전기:0.3%, 발표:0.3%) 中 7월 수출 (전기:7.2%, 발표:14.5%) 中 7월 수입 (전기:5.5%, 발표:-1.6%) 日 6월 경상수지 (전기:522.8B, 발표:-399.1B)
<b>11</b>	<b>12</b>	<b>13</b>	<b>14</b>	<b>15</b>
9일 中 7월 소비자물가 (전기:2.3%, 발표:2.3%) 中 7월 생산자물가 (전기:-1.1%, 발표:-0.9%)	EMU 8월 ZEW 예상 (전기:48.1, 예상:--) 獨 8월 ZEW 예상 (전기:27.1, 예상:17.0)	美 7월 소매판매 (전기:0.2%, 예상:0.2%) 中 7월 산업생산 (전기:9.2%, 예상:9.2%) 中 7월 소매판매 (전기:12.4%, 예상:12.5%) 中 7월 고정자산투자 (전기:17.3%, 예상:17.4%) 日 2Q 경제성장률 (전기:6.7%, 예상:-7.1%)	美 주간 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 (전기:289K, 예상:295K) EMU 2Q 경제성장률 (전기:0.9%, 예상:0.7%) 獨 2Q 경제성장률 (전기:2.3%, 예상:1.4%) 韓 금통위	美 7월 생산자물가 (전기:0.4%, 예상:0.1%) 美 7월 산업생산 (전기:0.2%, 예상:0.3%) 美 7월 설비가동률 (전기:79.1%, 예상:79.2%) 美 8월 소비심리지수 (전기:81.8, 예상:82.5)
<b>18</b>	<b>19</b>	<b>20</b>	<b>21</b>	<b>22</b>
EMU 6월 경상수지 (전기:8.9B, 예상:--)	美 7월 소비자물가 (전기:0.3%, 예상:--) 美 7월 주택착공건수 (전기:893K, 예상:--) 美 7월 건축허가건수 (전기:963K, 예상:--)	EMU 6월 건설생산 (전기:3.5%, 예상:--) 日 7월 수출 (전기:-2.0%, 예상:--) 日 7월 수입 (전기:8.4%, 예상:--) 日 7월 무역수지 (전기:-822.2B, 예상:--) 美 FOMC 회의록	美 주간 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 美 7월 기준주택매매 (전기:5.04M, 예상:--) EMU 8월 복합 PMI 잠정 獨 8월 제조업 PMI 잠정 中 8월 HSBC 제조업 PMI 잠정	
<b>25</b>	<b>26</b>	<b>27</b>	<b>28</b>	<b>29</b>
美 7월 신규주택매매 (전기:406K, 예상:--) 獨 8월 IFO 기업환경 (전기:108.0, 예상:--)	美 7월 내구재주문 (전기:0.7%, 예상:--) 美 6월 CS 주택가격 (전기:-0.31%, 예상:--)		美 주간 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 美 2Q 경제성장률(2차) (1차:4.0%, 예상:--) 美 7월 미결주택매매 (전기:-1.1%, 예상:--)	美 6월 개인소득 (전기:0.4%, 예상:--) 美 6월 개인소비 (전기:0.4%, 예상:--) EMU 8월 소비자물가 예상 韓 7월 산업생산 (전기:0.6%, 예상:--) 韓 7월 선행지수순환변동치 (전기:101.5, 예상:--)
<b>9/1</b>	<b>2</b>	<b>3</b>	<b>4</b>	<b>5</b>
EMU 8월 제조업 PMI 최종 (전기:52.8, 예상:--) 獨 2Q 경제성장률 최종 (전기:2.3%, 예상:--) 中 8월 제조업 PMI (전기:51.7, 예상:--) 中 8월 HSBC 제조업 PMI 최종 (전기:51.7, 예상:--) 韓 8월 수출 (전기:5.7%, 예상:--)	美 8월 제조업지수 (전기:57.1, 예상:--) 韓 8월 소비자물가 (전기:1.6%, 예상:--)	美 7월 제조업수주 (전기:1.1%, 예상:--) EMU 7월 소매판매 (전기:2.4%, 예상:--) EMU 2Q 경제성장률(잠정) 美 베이지북	美 주간 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 美 8월 ADP 민간취업자변동 (전기:218K, 예상:--) 美 8월 비제조업지수 (전기:58.7, 예상:--) 韓 2Q 경제성장률 최종 (잠정:3.6%, 예상:--) ECB 회의	美 8월 비농업취업자변동 (전기:209K, 예상:--) 美 8월 실업률 (전기:6.2%, 예상:--) 獨 7월 산업생산 (전기:-0.5%, 예상:--)

주: 날짜는 해당국의 Local Time 기준이며 예상치는 Bloomberg 기준, K는 천, M은 백만을 의미  
미국 지표인 경우 전기대비, 다른 국가들의 경우 전년동기대비 데이터를 나타냄

## 투자포커스

### 가격제한폭 확대는 시장 활성화 의지의 적극적 표현

Quant Analyst 이대상 769-3545 daesanglee@daishi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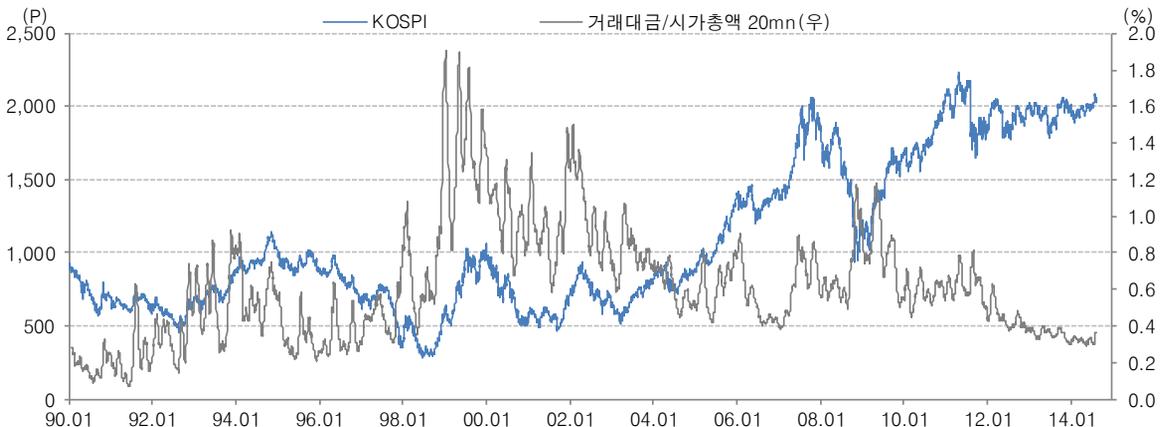
#### 지금 시장에 필요한 것은 변동성

지난 8월 12일 박근혜 대통령 주제로 열린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금융 분야내 투자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시장의 역동성을 제고하고 기업가치가 제대로 평가되는 시장 여건을 조성한다는 취지 하에 증시 가격제한폭을 현행  $\pm 15\%$ 에서 단계적으로 확대( $\pm 30\%$ )하겠다고 했다. 가격제한폭 확대는 KOSPI기준으로 1998년 12월 이후 16년만이며 KOSDAQ과 파생상품 시장의 동시 시행 여부는 추가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그 중에서도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정책적 시도가 다양하게 이어지고 있다. 지난 주 세법개정안을 통해 [가계소득 증대세제-3대 패키지]를 신설한 것에서부터 8월 14일로 예정된 금통위에서는 금리인하가 기정사실처럼 시장에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 와중에 KOSPI의 가격제한폭 확대까지 더해지는 모습이다. 연속적이고 집중적인 움직임이 돋보인다. 이 중에서 가격제한폭 확대는 무려 16년만의 정책적 변화라는 점에서 관심을 가질만하다.

정부는 '가격제한폭 확대'를 통해 시장의 역동성 제고, 제대로 된 기업가치 평가, 시장의 가격 발견기능 강화를 꾀하고자 이 정책을 추진한다고 했다.(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대책 20140812) 가격제한폭을 확대하면 정부가 의도한 효과 중 시장의 역동성 제고는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머지 부분은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1. KOSPI의 종가지수와 거래대금/시가총액 비율(20일 평균)의 1990년이후 장기 추이



자료: WSEIn,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 KOSPI는 1998년 이후 가격제한폭 15% 제도가 이어져오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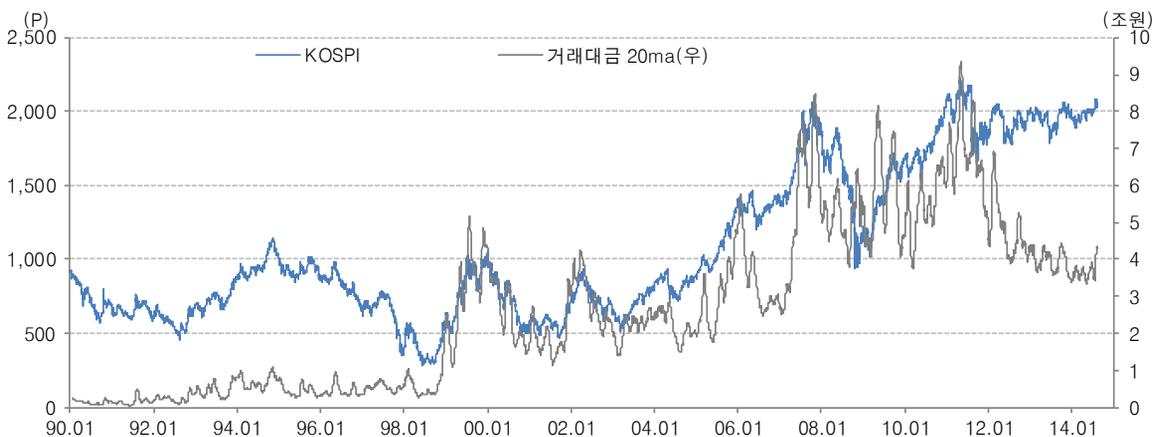
우선 한국의 가격제한폭 제도의 역사에 대해 살펴보자. 상하한가 제도, 즉 가격제한폭 제도는 196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그 이후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 1960년대 정액제였던 상하한가 제도는 1972년 6월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경. (액면가 초과시에는 10%, 액면가 이하시에는 5%)로 규정
- 1973년 7월에 전종목 50원으로 균일화
- 1988년 2월에 감리종목 상승폭을 1/2로 축소조치하였다가 90년 10월 23일에 해제
- 1992년 6월에 기존 13단계에서 17단계로 가격제한폭이 확대. 가격대별로 가격등락이 달랐음(정률로 치면 대략 4.5%수준)
- 1995년 4월 6%로 정률제를 채택하여 이 때부터 정률제 적용
- 1996년에 8%로 정률제로 변경되고 1998년3월에 12%정률제로 변경
- 1998년 12월에 유가증권시장(거래소)는 15%로 변경되어 유지되고, 코스닥시장은 2005년 3월28일 12%에서 15%로 변경

국내 주식시장은 1960년대부터 가격제한폭이 꾸준히 확대되어 왔다. IMF이전에는 8%에서 1998년 3월 12%로 확대되었다가 같은 해 KOSPI는 15%로 추가 확대되었다. 1992년부터 허용된 외국인투자가 1998년 외국인투자한도 완전 철폐된 것과 더불어 국내 주식시장의 가격제한폭도 현재 수준인 15%로 확대된 것이다.

1990년 이후 KOSPI의 거래대금 추이를 보면 1998년 중반부터 폭발적인 증가를 했는데 외국인투자한도 완전 철폐와 가격제한폭 확대 시기와 겹치고 있다. 이 두가지가 거래대금 레벨업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단정짓기는 무리가 있지만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알 수 있다. 이처럼 가격제한폭 확대는 거래대금 증가에 일정부분 기여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림 2. KOSPI의 종가지수와 거래대금(20일 평균)의 1990년 이후 장기 추이



자료: WISEIn,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 외국의 경우 가격제한폭 제도가 없는 국가(미국, 영국, 싱가포르 등)도 많음

외국의 경우에는 가격제한폭 제도가 아예 없는 국가도 많이 있다. 가장 선진화된 자본 시장이라 할 수 있는 미국, 영국은 가격제한폭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아시아 금융 허브로 특화된 홍콩과 싱가포르 주식시장에도 하루에 움직일 수 있는 가격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당사에서 조사한바에 따르면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남아공이 가격제한폭이 없었다. 우리와 줄곧 비교되곤 하는 대만의 경우는 종목별로 다르게 상하한가 제한을 두고 있었는데 평균적으로는 7%라고 한다. 일본도 가격제한폭이 존재하는데 평균 21%로 매우 제한폭이 넓었다. 일본의 종목별 가격제한폭 제도는 우리나라의 주식 호가단위 처럼 주식 가격을 기준으로 가격제한폭이 정해져 있다.[표2] 최소 14%에서 최대 50%까지(상승과 하락을 모두 고려한다면 28%에서 100%) 움직일 수 있는데, 특이한 것은 주가가 클수록 상대적으로 가격제한폭이 작았다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는 비율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15%에서 30%로 확대된다면 전종목에 일괄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표 1. 국가별 주식시장 상하한가 제도(가격제한폭 제도) 현황

지역	국가	제도
아시아	대만	종목별 상하한가 존재(평균7%)
	일본	종목별 상하한가 존재(평균21%)
	홍콩	없음
	중국(상해/ 심천)	일반종목 10%, 퇴출(ST)기업 5%
	싱가포르	없음
태평양	호주	없음
	뉴질랜드	없음
북미	미국	없음
	캐나다	없음
유럽	영국	없음
	프랑스	상하한가 10%
	독일	종목별 상하한가 존재
	스위스	종목별 상하한가 존재
	오스트리아	없음
	벨기에	상하한가 10%
	네덜란드	상하한가 10%
	아일랜드	종목별 상하한가 존재
	덴마크	종목별 상하한가 존재
	핀란드	종목별 상하한가 존재
	노르웨이	없음
	스웨덴	종목별 상하한가 존재
	그리스	종목별 상하한가 10~30%
	이탈리아	종목별 상하한가 존재
	포르투갈	상하한가 10%
스페인	종목별 상하한가 존재	
아프리카	남아공	없음

자료: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표 2. 일본주식시장(Tokyo Stock Exchange)의 가격제한폭 제도

Price Break (¥)	Price Limit (+/-¥)	Smallest Possible % Move	Largest Possible % Move
100 or less	30	30.00%	—
~ 200	50	25.00%	50.00%
~ 500	80	16.00%	40.00%
~ 700	100	14.30%	20.00%
~ 1,000	150	15.00%	21.40%
~ 1,500	300	20.00%	30.00%
~ 2,000	400	20.00%	26.70%
~ 3,000	500	16.70%	25.00%
~ 5,000	700	14.00%	23.30%
~ 7,000	1,000	14.30%	20.00%
~ 10,000	1,500	15.00%	21.40%
~ 15,000	3,000	20.00%	30.00%
~ 20,000	4,000	20.00%	26.70%
~ 30,000	5,000	16.70%	25.00%
~ 50,000	7,000	14.00%	23.30%
~ 70,000	10,000	14.30%	20.00%
~ 100,000	15,000	15.00%	21.40%
~ 150,000	30,000	20.00%	30.00%
~ 200,000	40,000	20.00%	26.70%
~ 300,000	50,000	16.70%	25.00%
~ 500,000	70,000	14.00%	23.30%
~ 700,000	100,000	14.30%	20.00%
~ 1,000,000	150,000	15.00%	21.40%
~ 1,500,000	300,000	20.00%	30.00%
~ 2,000,000	400,000	20.00%	26.70%
~ 3,000,000	500,000	16.70%	25.00%
~ 5,000,000	700,000	14.00%	23.30%
~ 7,000,000	1,000,000	14.30%	20.00%
~ 10,000,000	1,500,000	15.00%	21.40%
~ 15,000,000	3,000,000	20.00%	30.00%
~ 20,000,000	4,000,000	20.00%	26.70%
~ 30,000,000	5,000,000	16.70%	25.00%
~ 50,000,000	7,000,000	14.00%	23.30%
50,000,000 or more	10,000,000	—	20.00%

자료: ITG report, Japanese Ups and Downs: An FAQ on Price Limits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 16년 동안 유지해 오던 제도를 변경하려는 이유는 지금의 시장 변동성이 극도로 낮아져 있기 때문 – 시장의 역동성 제고

16년 동안 유지해 오던 15% 가격제한폭 제도를 지금 시점에서 변경하려는 이유는 현재의 시장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지금은 역사적으로 주식의 변동성이 극도로 낮아져있는 시기이다. 앞서 살펴봤듯이 현재 KOSPI의 20일평균 일간 거래대금은 4.3조원으로 절대금액 수준으로는 2006년초반까지 하락해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시가총액 대비 거래대금 비율로 살펴보면 1990년부터 보더라도 거의 역사적 바닥에 근접해가고 있다. 거래대금이 역사적 최저수준까지 하락했다고 봐도 무방하다. 시장의 역동성이 상당히 떨어져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시장의 역동성 다시 말해 변동성은 여러가지 정황들을 봐도 2000년이후 최저 수준임을 나타내고 있다. KOSPI 종목들의 일간 수익률 표준편차의 20일 평균 수치[그림4]를 보거나, KOSPI 전체 종목의 수익률 분포에서 평균에서 2Sigma만큼 떨어져있는 종목의 비중을 살펴보더라도 지금은 극도로 낮은 변동성 국면에 들어와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 KOSPI의 증가지수와 거래대금/시가총액 비율(20일 평균)의 1990년이후 장기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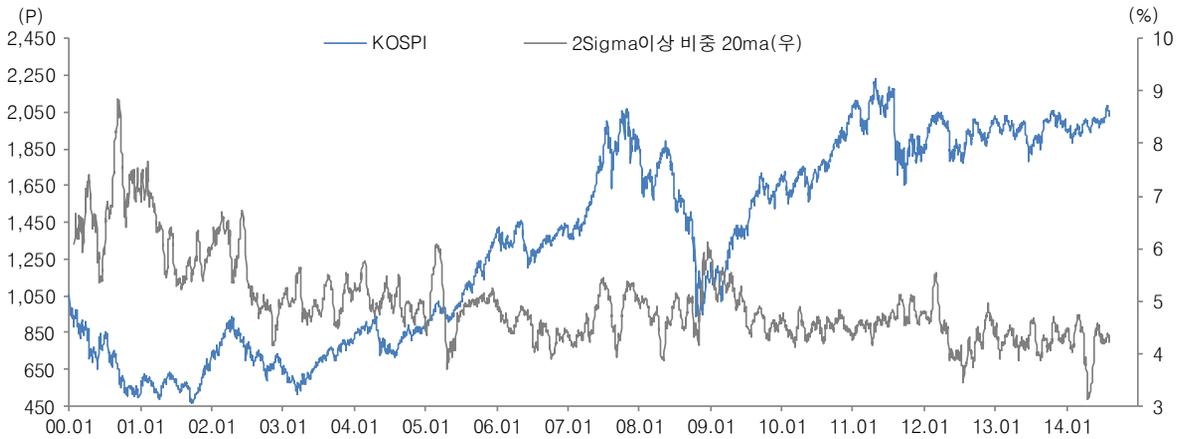
자료: WSEIn,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4. KOSPI 종목들의 일간 수익률 표준편차 20일 평균 추이. 2000년 이후 최저 수준



자료: WSEIn,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5. KOSPI의 종목들의 수익률 분포에서 +/-2Sigma를 넘어서는 종목의 비중



자료: WSEIn,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 한국 시장을 떠난 투기적 투자자가 유입되는 효과를 통해 시장의 역동성이 제고될 것. 부작용도 존재함

시장에는 다양한 투자전략과 투자목적에 갖고 있는 투자자가 존재한다. 분류를 하자면 투기적 투자자부터 주식을 매수매도할 유인이 거의 없는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까지 스펙트럼이 다양하다. 이 중에서 한국에는 투기적 투자자는 상당부분 시간을 떠난 것으로 파악된다. 시장 변동성이 이렇게까지 낮아져 있는 상황이니 단기에 큰 수익을 노리는 투기적 투자자는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하지만 가격제한폭이 실제로 상한하한 30%까지 확대된다면 투기적 투자자들을 시장으로 끌어들이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산술적으로 하루 최대 60%의 수익률(하한가에 사서 상한가에 파는 경우, 현재는 일일 최대수익률 30%)을 거둘 수 있는 시장은 투기적 투자자에게는 매력적인 시장일 것이다. 투기적 투자자들의 활동으로 인해 단기간에 급등락하는 종목들이 실제로 생겨나게 되고 이러한 시그널링 효과로 인해 주식시장에 무관심했던 다른 투자자들까지 시장에 참여하게 되면 시장의 변동성은 확대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긍정적인 면만 살펴본 것이고 부작용 또한 존재한다. 변동성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단기간에 주식시장에서 큰 손실을 보는 투자자도 나올 수 있다. 소위 작전세력들이 더욱 활개치는 결과도 나타날 수 있고, 정작 의도했던 대형주들의 변동성에는 전혀 변화가 없는 대신 중소형주들의 변동성만 극단적으로 확대되어 오히려 소액투자자들은 더욱 커진 변동성에 의욕을 상실하여 시장을 떠날 수도 있다. 모든 변화에 일장일단이 있겠지만 변동성 확대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긍정적인 효과가 다소 우세할 것으로 판단한다.

**거래 활성화는 기업의 본질가치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함.  
영향을 주더라도 부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할 소지도 다분함.**

사실 주식의 거래와 관련된 규제 및 정책은 어떠한 효과든 그 영향은 미미하다는 것이 일반론이다. 기업의 본질가치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전혀 아니기 때문이다.

주식시장은 기업의 소유권을 사고팔수 있는 시장이다. 기업의 소유권 뿐만 아니라 모든 경제재화가 주인이 예전에 비해 더 자주 바뀐다고 그 재화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기업가치가 제대로 평가되는 시장여건을 조성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냥 허울 좋은 표현일 뿐이다. 물론 기업가치가 하루 아침에 30%가 바뀌는 경우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러한 급격한 기업가치의 변화는 보통 긍정적인 경우 보다는 부정적인 경우가 많을 것이다. 기업이 그동안 숨겨왔던 부실이 공개된다거나 해서 부도가 나는 경우, 기업의 모든 것을 담당했던 사람이 갑자기 사임을 한다던가 사망을 한다던가 하는 이벤트가 발생하면 기업가치가 하루 아침에 30% 이상도 급락할 수 있다. 일반적인 주식의 특성상 상승은 완만하고 천천히 하락은 과도하고 빠르게 이루어진다. 이 같은 급격한 하락 측면의 기업가치 평가가 제대로 되는 것을 정부가 원하는 않을 것이다.

**보다 중요한 것은 증시를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의도가 이번 제도 변화를 통해 또 한번 확인됐다는 것**

가격제한폭 확대 정책 추진에서 투자자가 읽어야 할 부분은 정부의 증시 활성화 의도이다. 16년동안 변화가 없었고 그 효과가 그 다지 크지 않을 수도 있고 오히려 부작용이 더 클지도 모르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에는 그 만큼 의지가 강하다는 것으로 봐달라는 일종의 과장된 몸짓이 아닌가 한다.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활성화 시키겠다는 의도를 내비친 것으로 봐야한다. 변동성 확대가 지금 시점에서 매우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정부는 이러한 것을 인지하고 있고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신호를 시장에 주고 있다. 이는 시장 상승 측면에서 긍정적인 것은 분명하다.

# 파생시황

## ▶ 선물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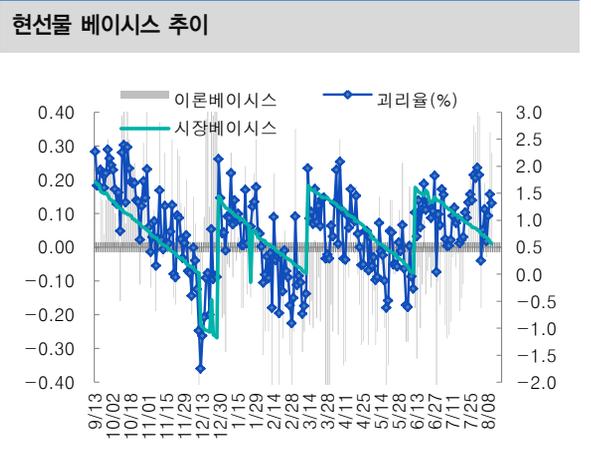
선물거래동향				
구분	9월 선물	12월 선물	KOSPI200	KOSPI
시가	265.2	266.7	264.14	2046.68
고가	266.45	267.9	265.91	2062.36
저가	264.4	265.9	263.3	2043.11
종가	266.4	267.9	265.91	2062.36
전일대비	1.75	1.7	2.57	20.89
(%)	0.66	0.64	0.98	1.02
거래량(계약)	123,044	566	69,550	275,928
거래대금(백만)	16,324,546	75,485	3,199,985	4,160,760
미결제약정	121,646	4,788		
전일대비	-958	221		

자료: Koscom,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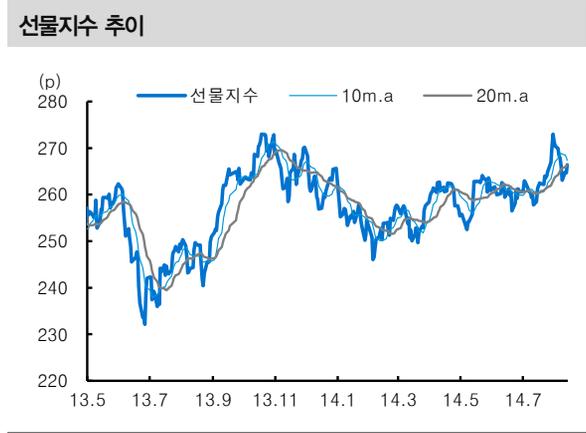
과리도				
구분	이론가격	과리율	종가Basis	평균Basis
최근월물	266.48	0.10	0.49	0.84
차근월물	268.22	0.01	1.99	2.33

프로그램매매동향 (단위: 백만원, %)										
구분	차익거래			비차익거래			전체			비중
	매도	매수	순매수	매도	매수	순매수	매도	매수	순매수	
08/11	8,623	32,899	24,275	634,741	641,952	7,211	643,365	674,851	31,486	19.09
08/12	12,215	53,234	41,020	681,388	746,435	65,047	693,602	799,669	106,067	20.14
08/13	8,079	10,979	2,900	703,337	1,037,824	334,487	711,416	1,048,803	337,387	21.05

옵션거래동향 (단위: 계약, 백, %)					역사적 변동성 (단위: %)			
구분	CALL	PUT	합계	P/C Ratio 당일	구분	당일	52w High	52w Low
거래량	1,451,220	1,307,817	2,759,037	0.90	20일	19.60	26.95	7.87
거래대금	445,695	346,499	792,193	0.78	30일	17.75	26.05	8.18
미결제약정	570,774	610,060	1,180,834	1.07	60일	16.44	23.55	10.82
내재변동성	10	14	12	1.41	90일	16.94	22.30	13.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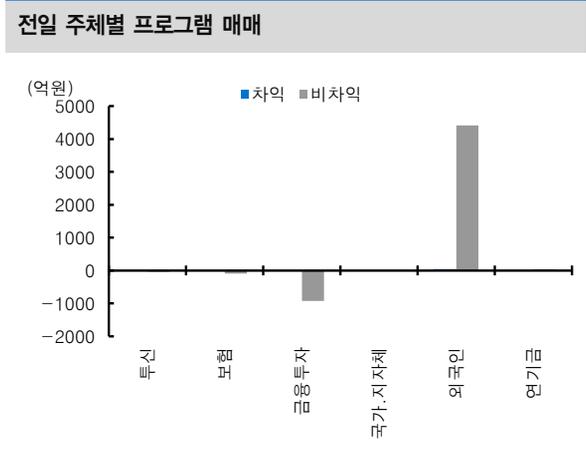


자료: KOSCOM,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Koscom,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스프레드			
구분	종가	전일대비	거래량
J9JCS	1.45	0.00	470
J9J3S	-	-	-



자료: KOSCOM,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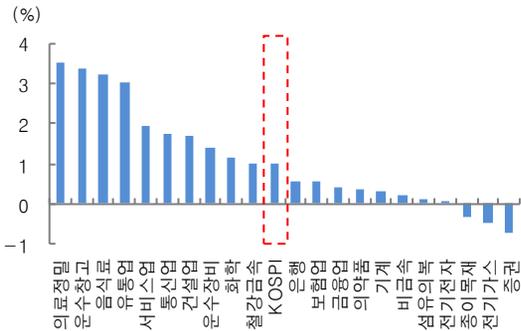
# Chart Alarm

## 01. 주가 등락률

- 13일 코스피는 외국인 순매수가 이틀연속 이어지며 전일대비 1.02% 상승한 2062.36에 마감
- 장 마감 기준 외국인은 4026억원 순매수했으며 기관과 개인은 각각 1335억원, 2701억원 순매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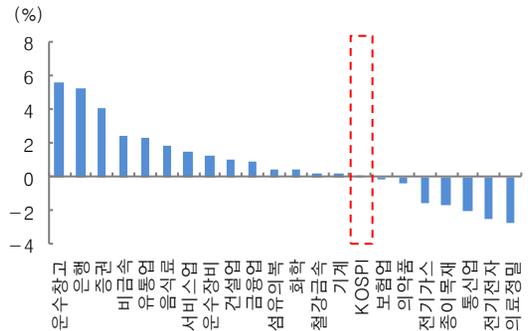
### ▶ 국내 증시

#### 전일 업종지수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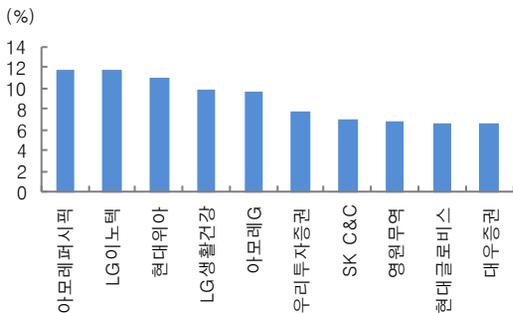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 최근 5일간 업종지수 수익률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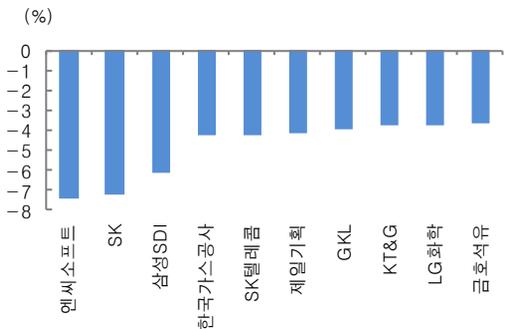
#### 최근 5일간 대형주 상승률 상위 10종목



주: 대형주는 KOSPI 시총 상위 100종목임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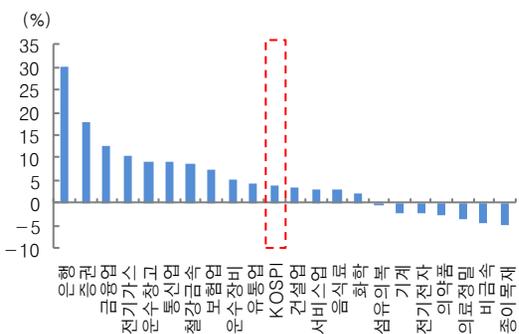
#### 최근 5일간 대형주 하락률 상위 10종목



주: 대형주는 KOSPI 시총 상위 100종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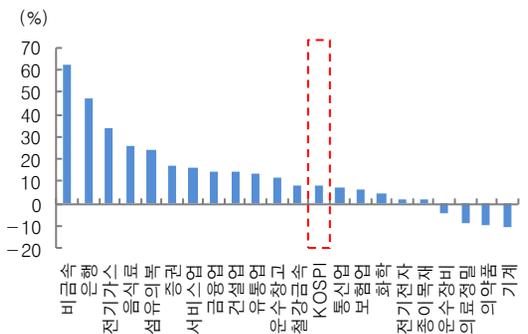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 최근 1개월 업종 수익률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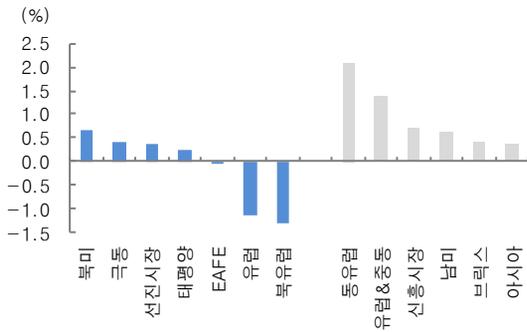
#### 연간 업종 수익률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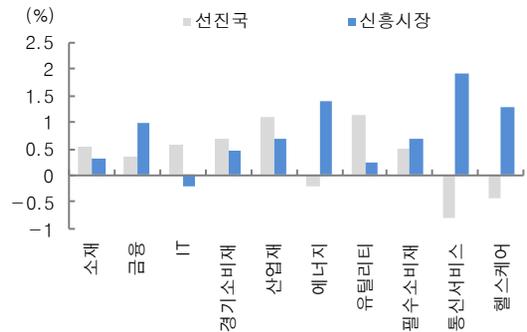
▶ 해외 증시

최근 5일간 MSCI 지역지수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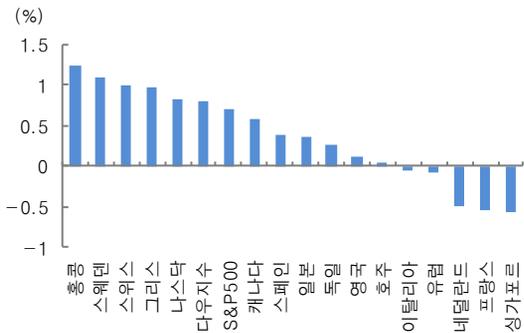
주: EAFE는 유럽, 호주, 극동아시아 지역임  
자료: Bloomberg

최근 5일간 MSCI 산업지수 등락률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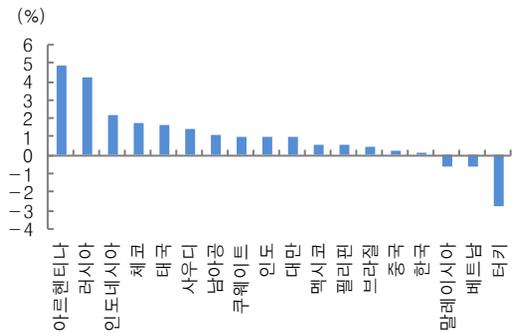
최근 5일간 선진국 주요 증시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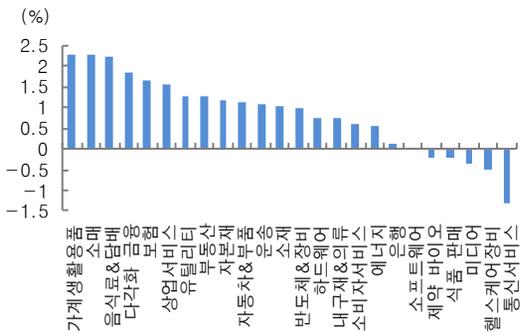
주: 그리스(ASE), 스페인(IBEX), 싱가포르(STI), 홍콩(HIS), 독일(DAX), 캐나다(S&P/TSX), 이탈리아(MIB), 프랑스(CAC), 유럽(SX5P), 호주(AS51), 네덜란드(AEX), 인도(SENSEX), 사우디(SASEDX), 필리핀(PCOMP), 태국(SET), 베트남(VNINDEX), 쿠웨이트(KWSEDX), 인도네시아(JCI), 브라질(BOV), 한국(KOSPI), 아르헨티나(MERVAL), 멕시코(MEXBOL), 말레이시아(KLCI), 터키(XU100), 남아공(TOP40), 중국(SHCOMP), 대만(TWSE), 체코(PX), 러시아(RTSS)

자료: Bloomberg

최근 5일간 신흥시장 주요국 증시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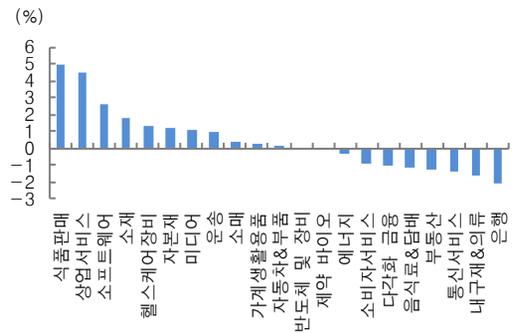


최근 5일간 미국 증시의 업종지수 등락률



주: S&P500의 업종 지수임  
자료: Bloomberg

최근 5일간 중국 업종지수 등락률



주: 상해 A시장의 종목을료 구성된 S&P/CTIC 300의 업종 지수임  
자료: Bloomberg

## 02. 상품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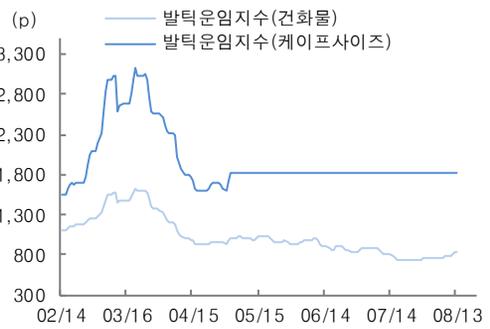
-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 9월 인도분 선물 가격은 전일대비 0.72% 하락한 97.37달러에 거래를 마감
- 금값은 12월 인도분이 전날 증가보다 0.1% 오른 온스당 1310.6달러에 거래를 마침

### CRB상품 가격과 LME 비철금속 가격



주: LME비철금속지수는 알루미늄, 전기동, 납, 니켈, 주석, 아연의 현물시세  
자료: Bloomberg

### 발틱 운임 지수(BDI, BCI)



주: 케이프사이즈는 15만DWT 이상 최대 용량의 벌크선임  
자료: Bloomberg

### 국제유가(WTI, 두바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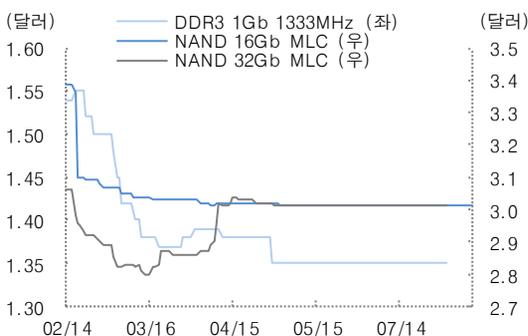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 금, 은 가격



자료: Bloomberg

### DRAM과 NAND 현물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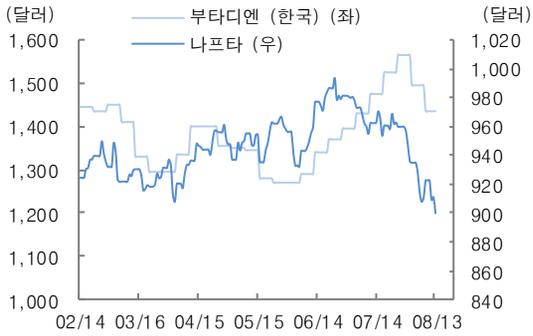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 철강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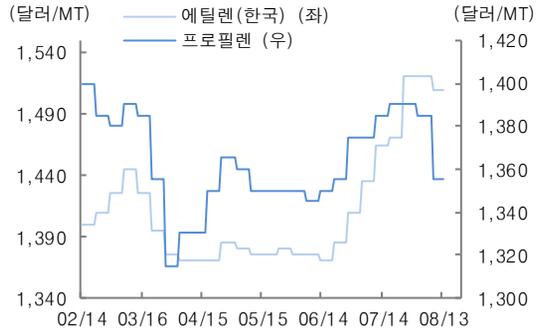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나프타, 부타디엔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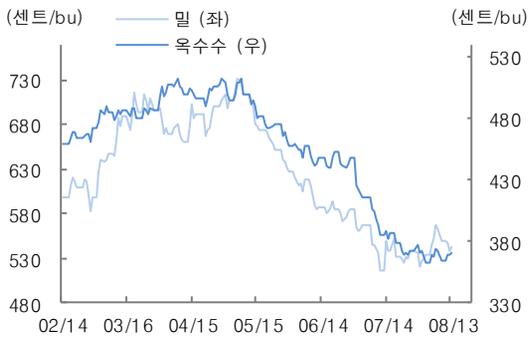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에틸렌, 프로필렌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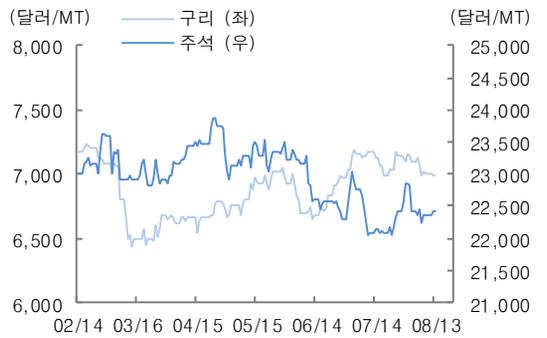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밀, 옥수수 가격



자료: Bloomberg

구리, 주석 가격



자료: Bloomberg

니켈, 아연 가격



자료: Bloomberg

알루미늄, 납 가격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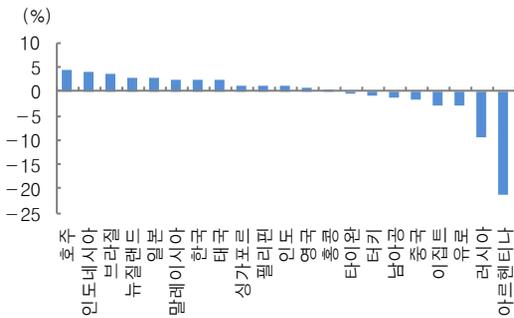
### 03. 금융지표

환율/금리/리스크 지표

- 1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2.50원 오른 1028.90원에 장을 마감
-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전일대비 0.004%p 하락한 2.515%에 거래를 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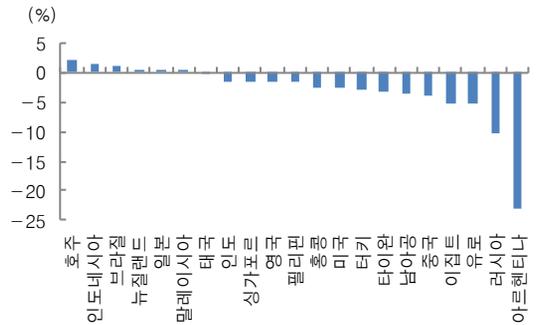
#### ▶ 환율

주요국 기준환율의 2014년 절상률 (달러 대비)



자료: Bloomberg

주요국 기준환율의 2014년 절상률 (원화 대비)



자료: Bloomberg

원/달러, 원/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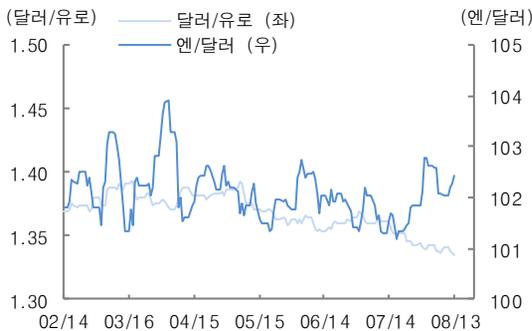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달러화 지수와 JP모건 아시아 통화지수



자료: Bloomberg

달러/유로, 엔/달러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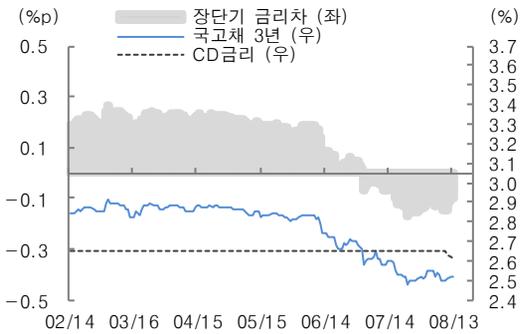
중국 위안화 현선물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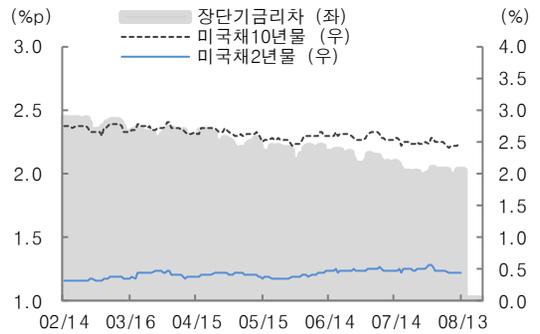
▶ 금리 및 리스크 지표

국고채3년, CD금리와 장단기 금리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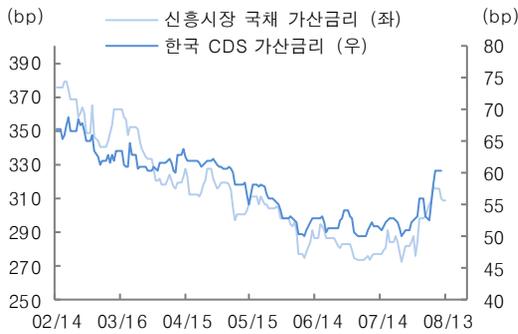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미국 국채 10년물, 2년물과 장단기 금리차



자료: Bloomberg

신용시장 국채 가산금리와 한국 CDS 가산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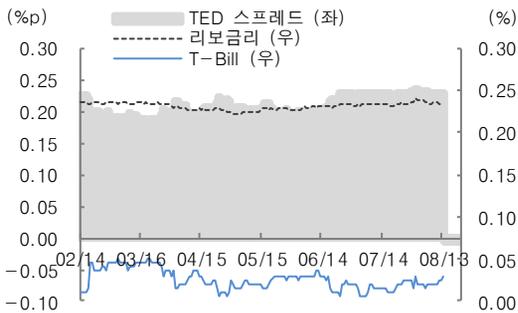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스페인, 이탈리아 CDS 가산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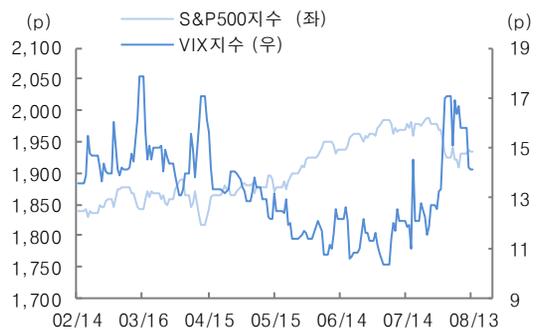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TED 스프레드



자료: Bloomberg

S&P500 지수와 VIX 지수



자료: Bloomberg

## 매매 및 자금 동향

### ▶ 투자주체별 매매동향 (유가증권시장: 순매수 금액)

(단위: 십억원)

구분	8/13	8/12	8/11	8/08	8/07	08월 누적	14년 누적
개인	-267.4	-28.3	46.7	273.4	186.2	404	-1,062
외국인	411.0	98.3	-14.7	-208.3	-50.6	697	7,001
기관계	-147.2	-62.7	-33.9	-43.1	-130.5	-720	-4,954
금융투자	-118.3	38.0	-20.4	4.0	-31.4	197	-2,585
보험	-16.4	-82.0	-55.6	-42.0	-17.5	-311	745
투신	-5.2	-21.9	31.9	13.7	-17.5	-320	-3,214
은행	-12.3	-9.6	-0.2	-16.2	-4.1	-94	-1,517
기타금융	1.1	-0.5	-2.6	3.1	3.9	2	-619
연기금	-35.8	26.8	8.6	24.8	-28.0	-17	3,438
사모펀드	34.2	-8.0	-1.1	-22.2	-35.4	-4	-445
국가지자체	5.5	-5.3	5.4	-8.2	-0.4	-172	-757

자료: Bloomberg

### ▶ 종목 매매동향

#### 유가증권 시장

(단위: 십억원)

외국인			
순매수	금액	순매도	금액
삼성전자	101.0	KT&G	21.7
NAVER	29.1	GKL	11.8
현대차	27.1	SK 텔레콤	10.7
현대모비스	17.1	아모레퍼시픽	9.5
LG 화학	13.6	LG 생활건강	4.1
한국전력	12.6	GS 건설	4.0
SK	11.3	아모레퍼시픽우	3.5
코웨이	10.8	NHN 엔터테인먼트	2.9
하나금융지주	10.2	미래에셋증권	2.9
POSCO	10.0	LG 생활건강우	2.8

자료: KOSCOM

기관			
순매수	금액	순매도	금액
NAVER	47.1	삼성전자	138.7
현대위아	36.1	현대차	32.3
LG 생활건강	21.4	한국가스공사	15.9
KT&G	17.5	현대모비스	14.1
CJ 제일제당	15.2	LG 화학	12.4
SK 텔레콤	14.7	삼성 SDI	11.0
아모레퍼시픽	11.1	SK 이노베이션	10.8
NHN 엔터테인먼트	10.9	SK	10.6
GKL	9.5	하나금융지주	10.3
SK 하이닉스	7.1	대우증권	10.1

#### 코스닥 시장

(단위: 십억원)

외국인			
순매수	금액	순매도	금액
CJ E&M	15.0	다음	22.3
원익 IPS	6.3	CJ 오쇼핑	7.4
셀트리온	3.0	파라다이스	2.9
바이오스페이스	2.8	선데이토즈	1.9
골프존	2.1	내츄럴엔도텍	1.9
바텍	1.7	미디어플렉스	1.6
씨젠	1.7	메가스터디	1.5
고영	1.7	덕산하이메탈	1.1
게임빌	1.7	이오테크닉스	0.9
위메이드	1.6	사파이어테크놀로지	0.9

자료: KOSCOM

기관			
순매수	금액	순매도	금액
파라다이스	5.5	다음	6.6
와이지엔터테인먼트	4.7	CJ E&M	1.9
조이맥스	4.6	인터파크	1.6
위메이드	2.3	우리스팩 3호	1.4
GS 홈쇼핑	2.3	SK 브로드밴드	1.2
뷰웍스	2.2	성광밴드	1.2
셀트리온	2.0	포스코 ICT	1.0
메가스터디	1.7	인터플렉스	1.0
한국사이버결제	1.7	엔텔스	1.0
컴투스	1.5	고영	0.9

▶ 최근 5일 외국인 및 기관 순매수, 순매도 상위 종목

외국인 (단위: %, 십억원)

순매수	금액	수익률	순매도	금액	수익률
NAVER	79.4	7.4	SK 하이닉스	73.2	-2.9
KB 금융	61.3	-0.7	KT&G	48.2	-8.3
신한지주	49.3	0.4	LG 생활건강	45.9	9.1
현대차	47.8	0.6	아모레퍼시픽	34.2	10.6
한국전력	45.3	-0.8	SK 텔레콤	29.4	-3.5
KT	38.6	1.6	GKL	29.3	-1.4
SK	23.8	-3.0	NHN 엔터테인먼트	28.1	-3.5
LG 전자	22.5	-0.4	동양생명	26.0	0.0
POSCO	22.2	1.7	삼성 SDI	22.9	-6.1
현대모비스	21.3	-0.3	삼성전자우	16.4	-1.3

자료: KOSCOM

기관 (단위: %, 십억원)

순매수	금액	수익률	순매도	금액	수익률
LG 생활건강	77.6	9.1	삼성전자	333.0	-2.0
현대위아	52.4	7.2	현대차	65.9	0.6
NAVER	50.4	7.4	삼성 SDI	53.2	-6.1
아모레퍼시픽	36.3	10.6	SK	53.2	-3.0
KT&G	35.0	-8.3	삼성물산	33.7	0.3
동양생명	32.0	0.0	엔씨소프트	32.2	-6.8
하이트진로	27.2	2.3	POSCO	24.4	1.7
KT	27.1	1.6	신한지주	23.5	0.4
SK 텔레콤	23.9	-3.5	현대모비스	23.1	-0.3
기아차	20.9	0.8	현대중공업	22.6	4.2

자료: KOSCOM

▶ 아시아증시의 외국인 순매수

(단위: 백만달러)

구분	8/13	8/12	8/11	8/08	8/07	08월 누적	14년 누적
한국	409.0	106.6	-35.6	-224.7	-89.1	587	7,509
대만	238.8	-123.3	-51.3	-30.7	-49.1	-334	10,876
인도	--	--	-18.3	-75.9	319.0	167	12,081
태국	--	--	--	-36.8	-31.8	-44	-948
인도네시아	34.4	36.4	35.1	-14.9	-20.1	34	4,989
필리핀	-5.0	-0.7	95.1	-8.9	-3.8	15	1,029
베트남	-9.5	-6.6	-6.9	-11.6	-5.9	-49	225

주: 대만 외국인 투자자 순매수 현황은 TWSE(Taiwan Stock Exchange) + GTSM(Gre Tai Securities Market)의 합산 데이터임. GTSM은 우리나라의 코스닥에 해당되는 General Board와 프리보드 역할을 하는 이머징 스타크 마켓 등으로 구분. 이머징 스타크 마켓은 General Board로 건너가기 위한 가교 역할을 수행  
 자료: Bloomberg, 각국 증권거래소

▶ Compliance Notice

-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정확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위 애널리스트는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동 자료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